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승천의 의미

승천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안에 묻힌 왕들이 하늘에 오르게 하는 사다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쉬 서사시는 웃나피쉬탐이라는 의인이 승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는 죽은 뒤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에 실려 하늘에 올라갔다. 이러한 승천은 영웅들이 죽어 평범한 이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해 주는 신들의 선물이다.

구약성경과 유대교에도 승천이 등장한다. 구약성경은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대교는 모세와 이사야도 승천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승천은 단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외경인 에녹서에 따르면 에녹은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하느님의 일을 돕기 위해 하늘에 들어 올려졌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약성경에서 오직 루카의 두 책,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만이 예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한 육신을 지니고 승천했다고 전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승천의 첫 번째 의미를 알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육신을 버리지 않으신 채, 즉 인성을 지니신 채 하느

---

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인성을 지니고 승천하신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도 친구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남편을 여인 뒤 유일하게 의지가 되었던 외아들마저 잃은 나인 과부의 비통함을 공감하며, 불의한 일 앞에서는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38년 동안이나 불구로 살던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던 그 예수님으로 남아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죄 외에는 우리와 똑같았던 그분으로 남아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예수 승천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뜻한다.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40일은 무엇을 위해 완전한, 충만한 기간이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려웠다. 예수께서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삼 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분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로써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시며, 부활하신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십자가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 승천의 네 번째 의미는 승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같은 독자를 대상으로 집필한 한 쌍의 책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루카 복음서가 예수 승천으로 끝나고,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사도행전이 예수 승천으로 시작하는 것은 승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과 교회의 연결고리임을 드러낸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은 교회가 앞으로 당신의 뒤를 이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였다. 우리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해나가야 한다.

영덕 본당 함원식 이사야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느님과 일치하셨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 찬미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르신 하늘나라에 우리의 희망을 두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141번 '죽음을 이긴'

### 본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사도행전 1장 1절-11절

**안 내** :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복음 선포를 당부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묵 상** :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 답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제2독서 : 에페소서 1장 17절-23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인들에게,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다고 전합니다.

**묵 상** : 바오로 사도는 믿는 이들을 위한 주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해 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

**복 음 : 마르코 16장 15절-20절**

**강 론 : ‘승천의 의미’(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57번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들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  
믿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침묵>

성찬 안에서 영성체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하소서.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히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 공소사목 성금**

장희성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47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 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3

- 일시 : 5월 14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 성체분배권 수여 교육

- 일시 : 5월 16일(수) 10:00 - 13: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교구 내 성체분배 소임을 수행하게 될 수도자, 선교사 및 평신도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 ■ 2018년 2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2만원(1인 1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5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 2018년 교구 친교의 날 및 제27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 일시 : 5월 22일(화) 09:00 - 16:00
- 장소 : 안동대학교 대운동장 및 테니스장
- 종목 : 테니스, 족구, 피구, 윷놀이, 줄넘기, 지구별 줄다리기
- 참가자격 : 안동교구 내 가톨릭 신자 (단, 예비신자는 참가 불가)
- 주최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안동지구 지구사목협의회
-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5월 13일(주님 승천 대축일) : 남성동 본당
- 5월 20일(성령 강림 대축일) : 청송 본당 (견진성사)
- 5월 27일(삼위일체 대축일) : 진보 본당 (견진성사)

### ■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 일시 : 5월 13일(주일) 9:30 ~ 17:00
- 장소 : 함창 상지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
- 준비물 : 미사준비, 운동화, 간편한 복장
- 참가비 : 10,000원 / 1명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30명 이내
- 일시 : 5월 18일(금) 14:00-19일(토)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 (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 652-0591 / 010-2785-0591

###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부부 (15쌍)
- 일시 : 5월 26일(토) 14:00 - 27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 (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제49차 안동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 19:00 - 19일(주일)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여성),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 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2차 홍보 주일 담화  
(2018년 5월 13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가짜 뉴스 그리고 평화를 위한 언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빨라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디지털 체제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른바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거짓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근본적 해독제는 진리로써 정화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유일하신 분은 살아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나는 진리이다”(요한 14,6).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충실성과 성실성 안에서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면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거짓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사람, 곧 탐욕에서 벗어나 경청의 자세를 지니고, 성실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 선을 지향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뉴스의 수호자’인 언론인들의 책임은 단지 직업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평화의 언론’을 증진할 것을 모든 이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에서 영감을 얻어, 진리 자체이신 분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주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친교를 이루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숨은 해악을 깨닫고  
악의에 찬 판단에서 벗어나며  
다른 이들을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충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니,  
저희의 말이 온 누리에 좋은 씨앗이 되게 하소서.  
외침이 있는 곳에 경청을,  
혼란이 있는 곳에 화합을,  
모호함이 있는 곳에 확실함을,  
배척이 있는 곳에 연대를,  
선동이 있는 곳에 절제를,  
피상만 있는 곳에 문제의 본질을,  
편견이 있는 곳에 신뢰를,  
적의가 있는 곳에 존중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가져오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바티칸에서  
2018년 1월 24일  
프란치스코



## 새로운 시작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우리 학교는 입학식이 없다. 3월 2일 개학을 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상근하는 교사 셋이서 올해는 어떤 아이들이 올까? 언제쯤 정원이 찰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를 보냈다. 재작년부터 학년말이 되면 재학생들을 모두 본교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 새로 들어오는 것이다.

나섬학교는 위탁형 대안학교다. 안동시와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곳이다. 학적은 본교에 그대로 두고 몸만 여기 와서 지낸다. 경북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가톨릭 상지대학교의 부설 기관으로 12년 전에 개교했다. 초기에는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을 퇴학시키는 대신 보냈다. 이른바 문제아들이었다. 최근에는 스스로 학습 환경을 바꾸거나 다른 교육과정을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학 다음 날 수정이가 왔다. 석 달 만이다. 거구가 달려와 여선생님들을 들어올렸다. 우리도 반가웠다. 작년에 다닌 아이들은 가급적 다시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수정이처럼 여기가 아니면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일 수밖에 없다. 3월 중순부터 한 주에 한두 명씩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5월이 되면 정원이 찰 것 같다.

식구가 늘어나는 것이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두렵다. 여기 오기까지 여린 속으로 겪었을 갈등과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겠는가. 그 상처를 제대로 보듬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고 숨은 꿈을 찾아 성장시켜주기에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일반 학교와 같지만 교과목은 많이 다르다. 국어, 영어 등은 최소 단위로 하고 미용, 요리, 양재, 공예 등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과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원예와 문예수업도 추가했다. 누가 알겠는가. 가영이가 장래 예쁜 꽃집 주인이 되고 수정이가 멋진 작가가 될는지.

가끔 돼먹잖은 아이들 데리고 쓸데없는 짓 한다는 말을 듣는다. 스스로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얘기가 있다, 남미의 어느 해변에 한 노인이 오래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백사장에는 파도에 밀려온 불가사리 새끼들이 햇볕에 말라갔다. 노인은 땀 댕을 새도 없이 불가사리들을 바다에 던져넣었다. 지나던 관광객이 참견했다. “이 더위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시오.” 노인이 계속 손을 움직이면서 대답했다. “쓸데없는 일이라뇨. 이 녀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동안 백여 명이 나섬학교를 수료했다. 저들이 더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중도탈락을 면하고 고교과정을 마쳤다. 진학과 취업도 했다. 얼마나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이 아이들이 적어도 세상을 해롭게 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점심을 먹고 간식을 나눈다. 예비 바리스타가 커피를 배달한다. 선생님과 아이들 구별이 없다. 까르르까르르. 웃음소리가 봄벌보다 눈부시다.